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87호  
2020.12.21

## 정책동향

■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태와 시사점

## 시장동향

■ 3/4분기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 산업정보

■ 건설기능 직종별 청년층 및 고령층 추이

■ 2020년 3/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건설논단

■ 석유의 종말과 해외건설의 미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최근 3년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태과 시사점

- 지방계약공사에서 발주 활발, 과도한 부계약 지분 배정 사례도 증가 -

### ■ 최근 3년간(2017~201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태 조사<sup>1)</sup>

- 발주 현황은 추진근거 법률별로 국가계약 대상 공사와 지방계약 대상 공사로 구분함.
  -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국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지방계약은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됨.

### ■ 국가계약 대상 공사 발주 현황과 특징

- 지난 3년간(2017~201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국가계약 공사는 총 72건(약 5.2조원, 추정가격 기준)으로 집계됨.
  - 부계약자 분담금액(계약금액 기준)은 약 0.43조원으로 부계약자 참여비율은 평균 8.3%임.
  - 참고로 2009~2016년 6월까지 집계한 선행연구(문혁 외 2016)에 따르면, 부계약자 참여비율은 전체 도급금액 대비 약 10.4%로 조사됨.
  - 국가계약 대상 공사의 최근 3년간 부계약자 분담비율은 이전에 비해 다소 낮아진 상황임.
- 발주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발주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10건), 한국수자원공사(4건) 순으로 집계됨.<sup>2)</sup>
- 공종으로 구분하면, 총 72건 중 건축공사가 5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목(17건), 산업환경(1건) 순임.
  - 부계약자 업종으로는 기계설비 업종이 총 72건 중 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토공사(16건), 비계(9건), 실내건축(6건) 순으로 집계됨.<sup>3)</sup>

1) 본고는 전영준, 최석인(202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으로 관련 자료는 비드시스([www.bidsys.co.kr](http://www.bidsys.co.kr))를 통해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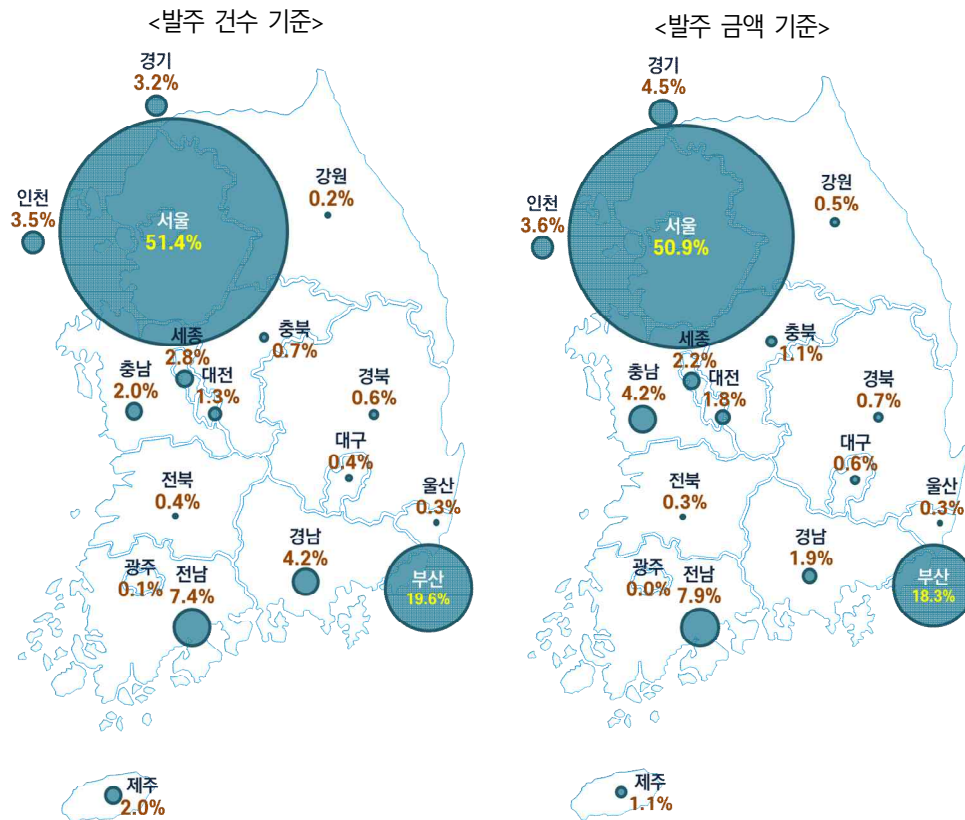
2) 이러한 경향은 2009~2016년까지의 데이터 분석결과와도 유사함. 다만, 과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많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23건), 한국가스공사(16건)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의 발주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바라보는 견해차(상생 협력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필요 / 발주결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발주 확대 지양)가 큰 것으로 판단됨.

3) 발주자가 부계약자 업종 분담 결정시 설계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내역상 해당 업종의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을 주로 부계약자 분담 업종으로 결정하고 있음.

## ■ 지방계약 대상 공사 발주 현황과 특징

- 최근 3년간(2017~2019년) 지방계약 대상 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건수는 총 1,014건(약 1.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계약 분담 업종 비율은 3년 평균 약 18.3%에 달해 국가계약 대상 공사 대비 지방계약 대상 공사가 높은 비율로 부계약자 업종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공공공사 발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정책적으로 활용 확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가 532건으로 가장 많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여 발주하였음.
  - 그 뒤를 이어 부산(201건), 전남(74건)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확대를 주요 지역건설 정책으로 발표한 지자체에서 주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최근 3년간 지방계약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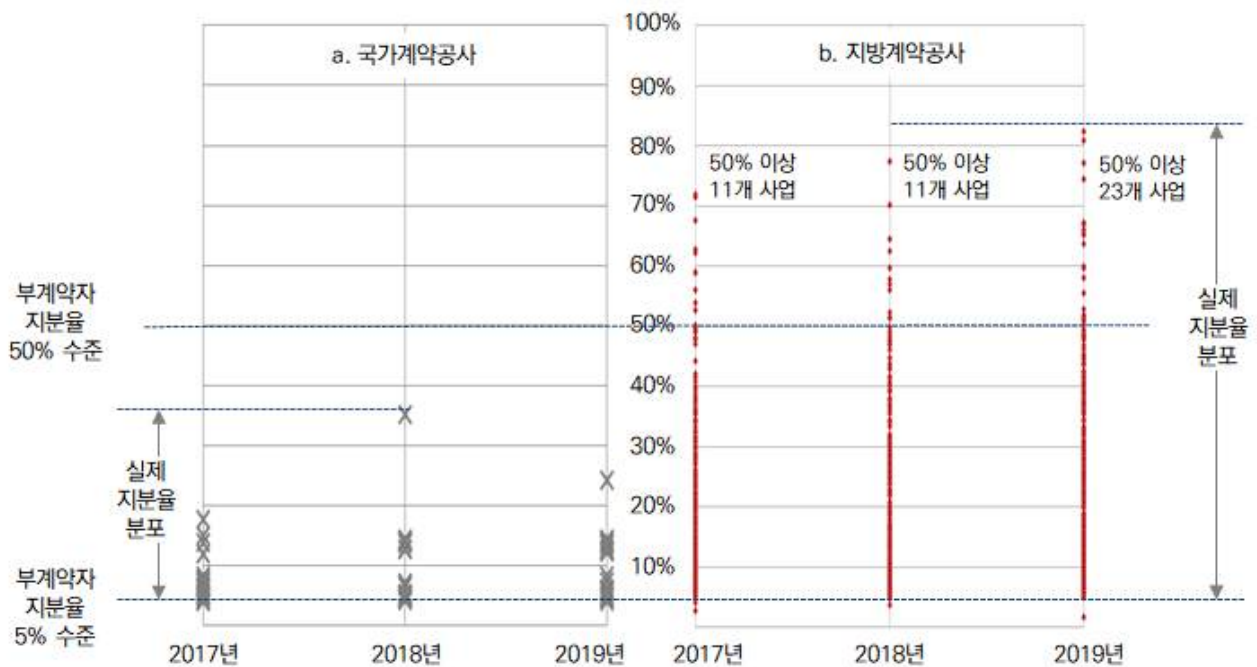


- 공종으로 구분하면, 국가계약 공사와 달리 총 1,014건 중 토목공사가 467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건축공사(446건)와 사실상 격차를 보이지 않았음. 지방계약공사는 공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 부계약자 업종으로 분담하여 발주한 업종으로는 국가계약 대상 공사와 마찬가지로 기계설비 업종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조경식재(129건), 철근·콘크리트(103건), 금속·창호·온실(91건), 토공사(86건), 상·하수도(84건) 순으로 집계됨.<sup>4)</sup>

### ■ 지방계약 공사의 부계약 분담 공종 지분을 50% 초과 사례 다수 발생

- 국가계약 대상 공사의 경우 부계약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발주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지방계약 대상 공사는 부계약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총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2017년 11건, 2018년 11건, 2019년 23건).
  - 부계약자 지분율이 40~50%에 육박한 사업도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국가 및 지방계약 대상 공사 부계약자 지분율 분포 현황



4) 2009~2016년까지의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동기간 철근·콘크리트(441건), 조경식재(303건), 토공사(219건), 기계설비(217건), 상·하수도(202건), 금속·창호·온실(147건) 순이었던데 반해 최근 기계설비 업종의 경우 큰 폭으로 발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 규모가 최소지분율 이상이며 분리발주의 요구가 거센 업종이기에 발주 구분의 편의성 때문에 발주자가 해당 업종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사업을 부계약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발주하였으며, 최대 82.3%까지 발주한 경우도 있었음.
  - 이는 발주기관이 실적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부계약자 분담비율을 상향시키는 경향과 더불어 소규모 공사이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부계약 분담 공종의 적정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 부계약 분담비율을 높게 결정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부계약자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공사는 모두 지방계약 대상 공사이고 지방계약 대상 공사는 공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에, 하도급 대비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투입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특성상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담비율의 50% 이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부계약자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경우 공기 지연 및 품질·안전관리, 관리의 효율성 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오히려 소규모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사례의 증가는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등 현장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
  - 하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는 부계약자로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기에 면허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주계약자의 경우 분담비율이 낮더라도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 운용 효율화 및 안정적 유효 경쟁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 ‘주계약자 최소지분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주계약자의 분담비율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전체 공사를 대표할 대표성이 부족하여 주계약자로서의 핵심 업무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주계약자 분담비율을 전체 공사의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최석인(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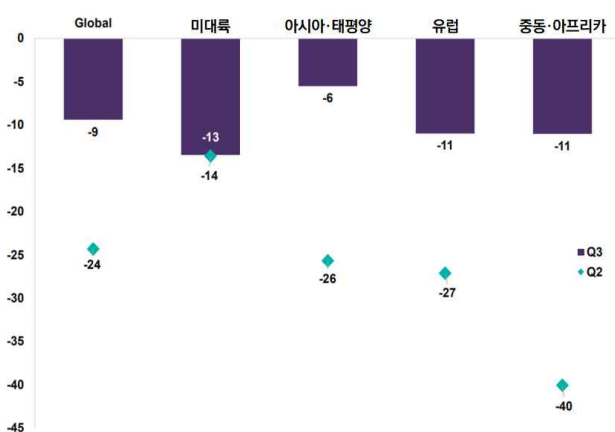
## 3/4분기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 인프라 부문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 가능성, 고용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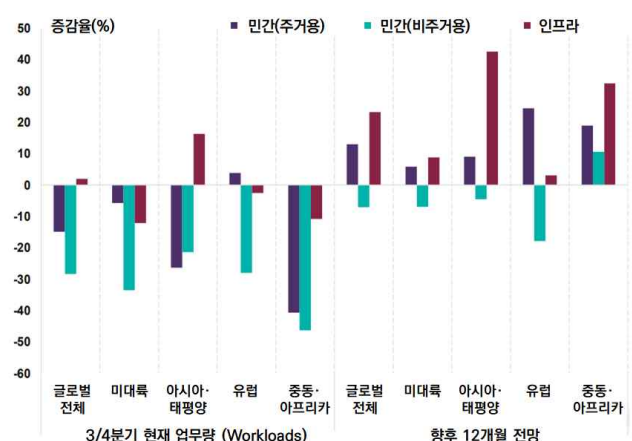
### 글로벌 건설시장, 2/4분기 대비 안정세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의 3/4분기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보고서<sup>5)</sup>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설시장의 위축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음.
  - RICS가 각국의 건설기업 1,358개를 대상으로 전 분기 대비 건설업무량<sup>6)</sup> 변화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재정투자 영향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주거·비주거 시설의 건설업무량, 인프라 건설업무량, 수익성을 토대로 산정한 건설활성지수(RICS Construction Activity Index)는 여전히 0보다 낮은 값에 머물러 있지만, 미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4분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그림 1> 참조).
- 대부분의 지역에서 3/4분기 주거·비주거 시설의 건설업무량 감소 폭이 큰 가운데 향후 12개월간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
  -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건설시장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에서는 민간 주거시설 부문이 성장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지역별 건설활성지수 (2/4, 3/4분기)



<그림 2> 지역별 3/4분기 건설업무량 및 전망



자료 :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2020).

5) 본 고는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RICS)가 지난 11월 5일 발간한 '3Q 2020: Global Construction Monitor'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6) RICS는 설문조사에서 개별 건설기업의 분기별 매출 및 수주 등의 증감률을 건설 업무량(Workload)이라는 지표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별 시장 성장 및 침체, 건설시장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회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3/4분기에 인원 감축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12개월 동안에도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여러 나라에서 건설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원 정책의 지속 여부 및 개별기업의 고용 여력 유지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임.
-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건설기업이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며, 홍콩, 스페인, 독일 등 국가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고용 감소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사슬 영향, 건설기업 수익성 하락 예상

- <그림 2>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비주거 시설 부문의 위축이 장기화되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건설사업 투입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수익성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자재 공급사슬이 변경 및 축소됨에 따라 자재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가별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노무비(숙련공, 비숙련공) 역시 상승하고 있어 해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타격이 예상됨.
- 12개월 전망을 종합하면 설문조사 응답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의 신규 건설사업의 입찰가격 상승이 0.6% 수준에 그칠 것에 반해 상승한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로 공사비는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특히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조사된 미대륙의 공사비는 4.3%, 중동·아프리카의 공사비는 6.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비와 노무비(숙련공)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중동·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지역별 건설 입찰가격 및 비용 변동 전망(향후 12개월)

구분	입찰가격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숙련공)	노무비(비숙련공)
글로벌시장 전체	+0.6%	+3.4%	+3.7%	+2.6%	+1.2%
미대륙	+1.4%	+4.3%	+4.9%	+2.8%	+1.5%
아시아-태평양	+0.4%	+2.9%	+3.5%	+2.7%	+1.2%
유럽	+0.7%	+2.3%	+2.0%	+2.0%	+0.4%
중동·아프리카	+2.5%	+6.3%	+5.9%	+3.2%	+2.1%

자료 :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2020).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 건설기능 직종별 청년층 및 고령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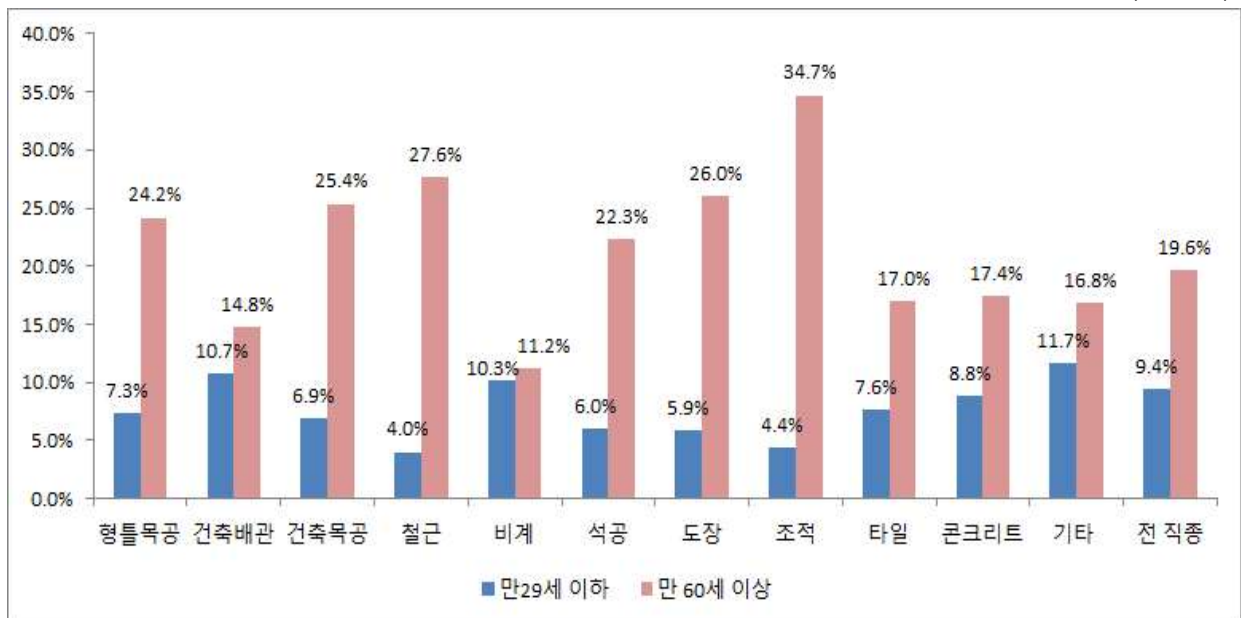
- 현장 중심적·선제적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체계 및 육성 로드맵 마련 필요 -

### ■ 내국인 전체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층 비중은 약 20%, 청년층 비중은 10% 미만<sup>7)</sup>

- 건설근로자공제회 DB의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 고령층(만 60세 이상) 및 청년층(만 29세 이하)에 대한 평균 비중을 분석함(<그림 1> 참조).
- 전체 직종의 경우, 고령층의 평균 비중은 19.6%로 청년층의 비중 9.4%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령층 비중은 조적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철근 27.6%, 도장 26.0%, 건축 목공 25.4%, 형틀목공 24.2% 순으로 분석됨. 청년층은 건축배관(10.7%)과 비계(10.3%)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 고령층 및 청년층 비중 : 2015~2019년 평균

(단위 : %)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원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DB(2015~2019년).

7) 본 고는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11), “주요직종 건설 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훈련 실태 조사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능인력 현황 및 실태 부분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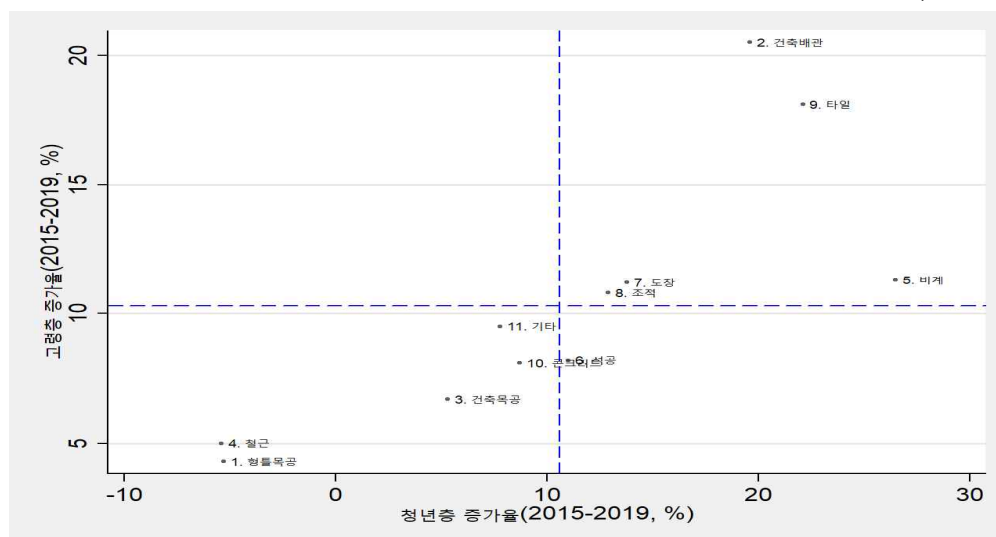


## 직종별 고령층 및 청년층 증가율은 정(+)의 상관관계 : 특정 직종의 기피 고착화 우려

- 2015~2019년간 연령대에 따른 증가율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청년층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증가율은 상호 보완관계(정의 상관관계)로 분석됨(<그림 2> 참조).
  - 직종별 증가 속도(증가율)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증가율과 고령층의 증가율이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즉, 고령층 증가 속도가 빠르면(느리면), 청년층 증가 속도도 빠른 것(느린 것)으로 분석됨(상관계수 0.79).
  - <그림 2>의 고령층 증가율 및 청년층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좌측 하단 영역(형틀목공, 철근공, 건축목공, 콘크리트공)은 상대적으로 청년층부터 고령층 모두 기피하는 직종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결과임.
  - 특히, 형틀목공과 철근공의 청년층 증가율은 5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그림 2> 직종별 고령층 증가율과 청년층 증가율 간 상관관계

(단위 : %)



주 : x축 점선은 2015~2019년간 직종별 청년층 증가율의 평균이며, y축 점선은 동기간 고령층 증가율의 평균임. 상관계수는 0.79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0), 원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DB(2015~2019년).

-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피 직종에 대한 선제적 보완 등 정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 직종뿐만 아니라 공종,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 중심적이고 선제적인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체계 및 육성 방향(로드맵) 마련이 시급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 2020년 3/4분기 건설업 경영 분석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매출액 감소 지속, 건설업 수익성 지표 모두 하락 -

### ■ 2020년 3/4분기 건설업 매출액증가율 마이너스(-) 지속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성장성 지표인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이 2/4분기 이어 3/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함(<표 1> 참조).
  - 2020년 3/4분기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2.70%로 2/4분기 -3.16%에 이어 마이너스(-) 수치를 유지함.
  -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됨으로 인해 3/4분기 전 산업 매출액증가율도 -3.17%로 마이너스 수치를 유지함. 다만, 3/4분기 전 산업 매출액증가율은 2/4분기보다 6.94%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0.46%p 상승에 그침.
- 건설업 총자산증가율은 2020년 3/4분기 1.62%로 2019년 3/4분기 -0.48%보다 2.10%p 상승함.

### ■ 건설업 수익성 지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수익성 지표인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3/4분기보다 다소 하락함.
  - 2020년 3/4분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6.36%로 2019년 3/4분기 6.39%보다 0.03%p 하락함.
  - 2020년 3/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3/4분기 5.50%보다 0.40%p 하락한 5.10%임.
-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수익성 감소와 차입금의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이자보상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020년 3/4분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2019년 3/4분기 561.49%보다 85.61%p 하락한 475.88%임.
- 전산업의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건설업은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임.
  - 2020년 3/4분기 전산업 수익성 지표를 2019년 3/4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87%에서 5.58%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68%에서 6.00%로, 이자보상비율은 395.88%에서

520.75%로 각각 개선됨.

● 활동성 지표인 건설업 총자산회전율도 전년 동기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임.

- 2020년 3/4분기 건설업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은 0.86회로 2019년 3/4분기 0.88회보다 다소 하락함.

## ■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나 차입금의존도와 차입금대매출액비율은 상승

●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0년 2/4분기보다 하락하여 양호한 모습임.

- 2020년 3/4분기 부채비율은 117.36%로, 2020년 2/4분기보다 1.47%p 하락하며 감소세를 이어감.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0년 1/4분기 123.27%, 2/4분기에 119.24%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차입금의존도는 전분기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며, 차입금대매출액비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4분기 22.07%보다 0.24%p 상승한 22.31%임.
- 매출액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차입금대매출액비율은 2019년 3/4분기 20.41%였으나 2020년 3/4분기 25.70%로 5.29%p 상승함.

<표 1> 주요 경영지표

구분		성장성 (%)	수익성 (%)			안정성 (%)	활동성 (회)	구분	성장성 (%)	안정성 (%)	
		총자산 증가율 <sup>1)</sup>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대 매출액 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증가율 <sup>2)</sup>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9 3/4	-0.48	6.39	5.50	561.49	20.41	0.88	2020 2/4	-3.16	118.83	22.07
	2020 3/4	1.62	6.36	5.10	475.88	25.70	0.86	2020 3/4	-2.70	117.36	22.31
제조업	2019 3/4	1.37	5.10	4.35	469.29	24.48	0.83	2020 2/4	-12.70	67.19	21.61
	2020 3/4	2.31	5.89	6.43	786.34	27.50	0.79	2020 3/4	-1.60	67.71	21.60
비제조업	2019 3/4	0.79	4.55	5.13	320.75	36.61	0.80	2020 2/4	-6.47	122.84	30.81
	2020 3/4	1.28	5.13	5.38	330.85	40.43	0.76	2020 3/4	-5.32	121.28	30.34
전 산업	2019 3/4	1.12	4.87	4.68	395.88	29.56	0.82	2020 2/4	-10.11	86.97	25.51
	2020 3/4	1.87	5.58	6.00	520.75	32.84	0.77	2020 3/4	-3.17	86.75	25.28

주 : 1) 전기 말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0.12.17), 2020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속보).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 석유의 종말과 해외건설의 미래

2011년 국내 대형건설 기업의 플랜트 사업부 임원이 "석유 없는 세상이 곧 올 텐데 플랜트 사업 수주에만 집중하는 국내 건설기업은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왜냐는 필자의 질문에 그가 대담으로 내놓은 것이 '(거의) 석유 없는 삶'이라는 책이다. 책에서 저자는 석유의 고갈은 닥칠 미래의 현실이고, 석유가 없는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에너지의 철저한 경제적 지배를 받고, 국제유가가 수급 불균형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할 때였으니 고객을 꼬덕거렸을 만하다.

산유국이 모여 있는 중동지역 건설시장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와 유럽에 이은 세 번째로, 다수의 해외 건설기업들 중동시장에 진출하고자, 혹은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 연간 수주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플랜트 공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60%다. 이리다 보니 국제유가의 높낮이에 따라 그해의 수주 규모의 변화 폭도 클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그렇더라도 해외건설 시장에서 매출 기준 세계 6위라는 성과는 석유가 만들어낸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석유의 존재는 초도 진출 이후 8,500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거둘 수 있었던 기본 환경과도 같다. 이렇게 중요한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수주를 거두고 진출 국가를 넓혀 가야 하는 국내 건설기업에는 전혀 반갑지 않다.

201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은 석유 시대의 종말이 2035년 이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말의 이유가 고갈이 아니라 '수요 급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BP는 2050년까지 석유 소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 수요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석유 수요가 5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석유 수요에 관한 비관론은 해외건설 시장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점진적인 석유 수요의 감소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시장과 상품인 중동지역의 산유국과 플랜트 발주 시장의 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ENR 250대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에서 석유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후 지속해 하락하고 있는 걸 봐도 석유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시장 변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의 변화가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산유국의 자발적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석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변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변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때문에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 약화가 예상되는 석유를 둘러싼 산업 환경과 국가별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유의 종말이 곧 해외건설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석유산업의 구조적 압력과 더불어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방식과 산업 형태의 변화는 해외건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주가 부진하다고 그만둘 해외건설이 아니라면, 다가올 해외건설의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다. 모르는 일이다. 석유의 종말이 해외건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에너지경제, 2020.11.18>